

---

# 마리오 보타의 건축이미지를 이용한 남성장신구

## Men's Jewelry using Mario Botta's Architectural Images

---

박승철\*, 유기현\*\*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주)디아템 대표\*\*

Seung-Chul Park(scspark@kongju.ac.kr)\*, Ki-Hyun Ryu(ryuki2002@hanmail.net)\*\*

---

### 요약

남성장신구는 여성장신구의 보조적 역할이나 예물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또한 디자인 종류도 한정되어 있으며, 디자인 자체가 선진국가의 것을 참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남성장신구 디자인 변화를 위해 그 모티브로 건축물을 선택하였다.

건축물은 남성을 대표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 힘이 있고 도전적이며 부와 권력을 상징 한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건축가로는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있다. 그의 건축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빛깔을 잃지 않고 지역성을 바탕으로 조형적인 형태감과 공간감을 연구한 작가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마리오 보타 건축물의 형태적 이미지와 공간적 이미지를 작게 압축시켜 남성장신구로 연관 재현시킴으로써 보다 구체적이며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할 수 있으리라는 의도에서 출발하여 그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모색코자 하였다.

이와 같이 마리오 보타의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형태적 이미지와 공간적 이미지를 통해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여, 조형성이 강조된 새로운 형태의 남성장신구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 중심어 : | 장신구 | 마리오보타 |

### Abstract

Men's jewelry are thought to have a limited role as assisting women's jewelry or wedding gifts. The variety of designs are limited, and most of them are just copies of Japanese designs. In order to bring out a new kinds of variety in men's jewelry design, I have chosen architectural structures as a motif.

Architectural structures have strong symbolical meanings that express man. They are powerful and challenging, and symbolize wealth and authority.

Mario Botta, the world famous architect is an architect with this kind of spirit. His architectural style does not lose his own color in a chaotic situation, but keeps the feeling of shape and space on the basis of locality.

In this study I have started with a motif that may express specific and modern feelings by compressing the shape and spatial images of Mario Botta's structures minimally into men's jewelry in order to grope the possibilities in all aspects.

I have done these in order to rediscover the beauty of the architectural structures by using the shape and spatial images that are found in Botta's structures, so that I may propose a new kind of men's jewelry with stresses on their shapes.

■ keyword : | jewelry | Mario Botta |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거에는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외적인 미를 가꾸는데 무관심하였다. 그것이 남자의 미덕이라고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의 트렌드는 메트로섹슈얼을 강조하며, 남성들도 여성들 못지않게 미를 가꾸어야 하는 시대이다.

건축은 남성적 성격이 강한 공간예술중 하나이다. 남성적 성격이 강한 건축물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하고, 구조적 형태를 위주로 디자인 되어있으며, 변화된 공간을 연출한다. 이러한 건축물은 남성장신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인은 남성장신구디자인의 핵심을 우리 일상에 공존하는 현대 건축물에서 찾고자 한다. 현대 건축가 중 마리오 마리오 보타는 유럽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건축 역사상 거장들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을 보면 사각형, 삼각형, 원 등 순수 기하학적인 원형에서 결합과 제거로 구성되어 남성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로서, 마리오 마리오 보타의 건축물이 갖고 있는 조형적인 형태감과 공간감 및 선의 비례, 좌우대칭, 비대칭 등 실제적인 조형성과 아울러 건축물의 환경적인 요소 등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미니멀하게 압축시켜 남성장신구로 재현시킴으로써 건축의 조형미와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할 수 있으리라는 의도에서 출발하여 건축물을 주관적으로 재해석하고 기능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그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 2. 마리오 보타의 건축세계

### 2.1 마리오 보타의 건축세계 특징

남성 장신구 제작에 있어서 마리오 보타의 건축 세계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마리오 보타의 디자인적 특성은 기하학적 형태를 분절시키고 다시 배열하여, 그것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축적인 요소들을 첨가하기 보다는 삭제할 선호하는 것인데, 이러한 그의 디자인적인 특성들이 잘 나타나 있는 단독주택에

서 외부형태와 파사드를 지배하는 것은 주택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견고한 이미지의 조적식 벽체와 수직으로 분절된 틈, 그리고 그 사이를 메우고 있는 대형 개구부와 상부의 천창이다.

이러한 마리오 보타의 디자인적인 특성들은 그의 단독주택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사용으로 표현된다. 검히 하면서도 엄격한 그의 건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마리오 보타의 단독주택의 외부 파사드에 사용된 콘크리트·블록벽의 분절된 외형은 주택 전체에 걸치는 풍부한 표면적 처리로 빛과 그림자의 역할이 강조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 내고 있다. 이렇듯 벽의 이미지와 기능은 마리오 보타 건축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 2.2 기하학적 형태

기하학적인 형태는 원시시대 건축물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기하학적 형태가 어떤 사상적 논리에 우선하여 실용성과 기능성이 간결, 단순하기 때문이다. “원, 정사각형, 정삼각형 등과 같은 가장 원초적인 형태들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형태들이다. 우리가 명확하게 형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르 코르뷔제\*

마리오 보타의 건축은 기초 기하학인 원통형과 정사각 직방체의 형상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모두가 강한 대칭성과 결합, 제거로 구성된다. 이런 강한 기하학의 사용은 건물을 강한 상징성으로 띠며 질서를 이루게 한다. 마리오 보타의 이러한 기본 형태는 대지와 하늘, 인간 존재와 자연 요소 사이에 있는 원형적인 존재이다. 마리오 보타는 건축적 이미지를 초기부터 일관되어 추구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 1) 원(圓)형의 건축물

건물들은 원형적인 평면 형태를 넣어 구성하고 건물 외관형태는 내·외부공간의 구분과 원형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유지한다. 또한 원형의 건물들은 상징적인 형태로 크게 도려 내서 그 내측에 거리를 두고 유리면을 설

\* 김경일, 김광형, “르 코르뷔제의 초기주택에 나타난 ‘내/외부’ 개념에 관한 연구”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8 No.2, 1988

치하는 2중 피막 구조의 기본요소로서 건물의 외관을 형성하는 동시에 내부에서는 공간을 형성하는 안쪽 면이기도 하다.

로손(Losone) 주택은 완벽한 원형의 기하학적 평면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주택의 정면 중앙부분에 수직으로 길게 형성된 보이드 공간이 존재하며, 이 공간을 감싸주는 외피가 없이 그 내부의 유리면이 외부와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다.

2) 직사각형의 건축물

마리오 보타의 건축적인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카데나쥬(Cadenazzo) 주택은 기다란 직사각형의 평면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면과 후면에 외부공간과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보이드 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보이드 공간을 감싸주면서 외부와 직접적으로 접하는 표피가 되고 있다.

3) 정사각형의 건축물

프레가소나(Pregassona) 주택은 정사각형의 입방체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좌우대칭 입면으로 정면 중앙부의 보이드와 그 안쪽의 내피 그리고 상부의 천장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양의 벽체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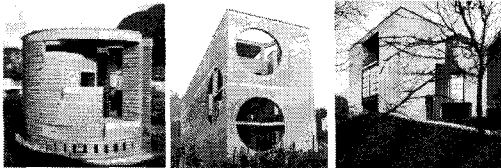


그림 1. Losone 주택      그림 2. Cadenazzo 주택      그림 3. Pregassona 주택

2.3 대칭성에 대한 사상

마리오 보타의 대칭성은 티치노 지방의 풍토건축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티치노의 풍토 건축은 산악 지방으로서 석축의 육중한 벽체 위에 박공지붕의 목조 가구가 올려져 단순한 대칭형으로 나타난다. 그가 풍부한 빛을 끌어들이기 위해 천장이 벽체로 이어져 내부공간에 빛이 도입되는 수직적 분절은 이러한 풍토 건축의

인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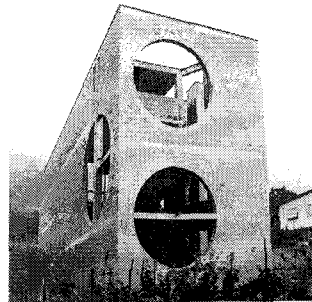


그림 2. Cadenazzo 주택,

1) 폐쇄형에서 나타나는 좌우대칭 관계

폐쇄형에서 입면의 좌우대칭은 구조체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로운 존재인 외피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조적식 벽체이면서 자유로운 존재인 외피는 주택의 입면 디자인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피의 자율성은 원, 아치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개구부 디자인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리바 산 비탈레(Riva San Vitale) 주택에서 나타나는 ‘ㄱ’자형의 좌우대칭 입면은 구조체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로운 존재인 이미지적인 역할의 외피에 의한 것이다.



그림 4. Riva San Vitale 주택

2) 개방형에서 나타나는 좌우대칭 관계

개방형에서 좌우대칭의 입면을 형성하는 것은 외피가 없이 외부로 드러나는 보이드 공간과 그 양옆의 조적 벽체 그리고 상부의 천장이다. 이때, 개방형의 좌우대칭적인 입면은 상부의 천장과 보이드 공간을 잇는 수직축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되고 있다.

마르비오 슈페리오레 (Morbio Superiore) 주택에서 나타나는 입면의 좌우대칭은 정면을 수직적으로 파내어진 보이드 공간과 그 상부의 천장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양옆에 벽체에 의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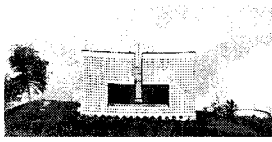


그림 5. Morbio Superiore 주택

## 2.4 빛에 의한 수법

마리오 보타의 빛은 개구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에 의해 형상화되어 진다. 빛은 건물의 중요하게 숨겨진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고 빛나게 해준다. 마리오 보타는 광원으로부터 공간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얻었고, 개인이나 공공건물 모두에서 머리 위의 광원은 건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강조한다. 건물 중심부로 떨어지는 빛은 외부보다 내부로 향한 건축적 의도인 내향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천장은 기하학적 축에 의해 세워지며, 하늘을 향한 내·외 공간사이를 관계 짓는 한정적 요소이며, 지붕의 구조에 대한 기억을 상징하는 빛의 집적체이다.

### 1) 폐쇄형에서 빛의 유입

폐쇄형에서 주택의 내부공간에 빛을 유입시키는 부분은, 보이드 공간 안쪽의 넓은 유리면의 내피이다. 그러나 이 유형에서 내피의 바깥쪽에 빛의 유입을 한정하는 외피가 존재함으로써 빛이 한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바칼로(Vacallo)주택의 빛 유입은 정면 외피의 대형 개구부와 중앙에 길게 형성되어 있는 보이드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넓은 유리면으로 처리되어 있는 내피를 통과한다. 이것은 내피의 넓은 유리면을 통해 내부로 유입되는 빛의 양이 외피에 의해 한정되어 있고, 주택 중앙의 천장에 의해 빛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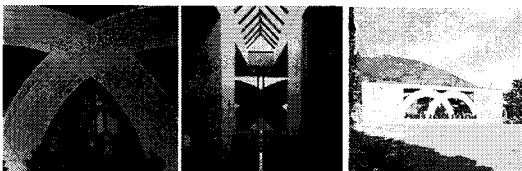


그림 6. 바칼로(Vacallo) 주택의 빛 유입

### 2) 개방형에서 빛의 유입

개방형에서 나타나는 내부공간으로의 빛 유입은 보이드 공간의 외부에서 빛의 유입을 방해하는 외피가 없이, 내피의 넓은 유리면을 통해 빛이 내부공간으로 직접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오르글리오(Origlio)주택은 3면에 걸쳐 존재하는 보이드 공간과 그 안쪽의 내피에 의해 대량의 빛이 내부공간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 결과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장은 쉼터(Shelter)로서의 역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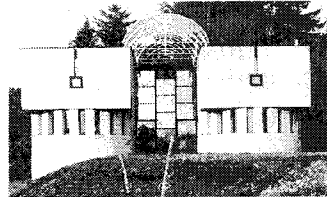


그림 7. Origlio주택의 빛 유입

## 3. 작품

### 3.1 시작품-POWER

이 작품은 삼성리움미술관의 로툰다를 중심으로 디자인 하였다. 로툰다의 특징은 원형 기둥에 나선형태의 투각과 천장의 돔 지붕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선형의 계단은 중앙을 중심으로 투각하여 빛이 개구부로부터 들어오게 하였고, 돔 지붕에서 대량의 빛이 내부공간에 유입되어 빛나게 해주었다.

이러한 특징인 원형의 로툰다를 남성장신구로서 디자인하였다. 반지에서 보석은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빛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푸른 보석 아쿠아마린(Aquamarine)을 사용하였다. 푸른 보석은 남성이 강한 색으로 건강, 충성심, 신뢰감, 명예 그리고 지성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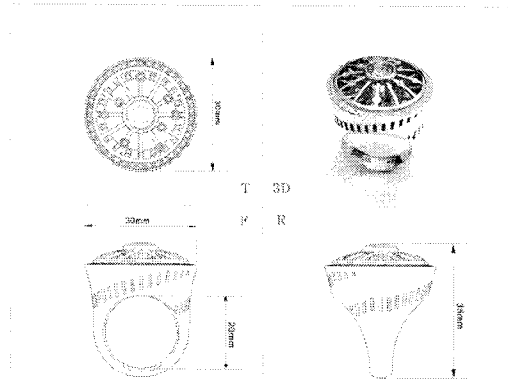
빛은 반지 윗부분인 돔 지붕에서 들어와 푸른 보석에 반사되면서 숨겨진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고 신비감을 주었다. 또한 빛은 외부보다 내부로 향해 건축적 의도

인 내향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반지의 윗부분인 돔 지붕은 기하학적 축에 의해 세워졌으며, 하늘을 향한 내·외 공간사이를 관계 짓는 한정적 요소로서 가운데 부분에 푸른보석을 세팅하여 내부에서 빠져 나오는 빛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로서 남성의 성공하고픈 욕망을 나선형 계단으로 표현하였으며, 남성적 색채로 활발함과 지성을 상징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8. 삼성리움미술관의 로툰다



No.	TITLE	MATERIAL	STONE	SIZE(mm)
1	POWER	은(92.5%)	아쿠아마린,CZ	30X30X35

### 3.2 시작품-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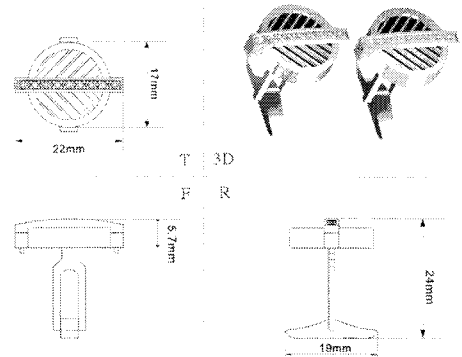
마리오 보타가 많이 쓰는 방법 중 현대미술관과 바티스타교회에서 나타나는 원기둥을 대각선으로 자른 듯한 형태이다. 대각선으로 잘라진 이 건물은 빛이 건물 안으로 잘 들어오게 하여 빛에 의해 형상화되어 진다. 빛은 건물의 중요하게 숨겨진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고 빛나게 해준다. 특히 교회 건물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지붕의 형태를 커프스버튼으로 디자인 하였다. 커프스버튼의 중요한 요소는 원(圓)형 천장으로 유입되는 대량의 빛을 내부의 공간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이다. 빛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파란색의 토파즈(Topaz)를 사용하였으며, 남성의 명예와 정직을 상징하여 디자인 하였다.



그림 8.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바티스타교회



No.	TITLE	MATERIAL	STONE	SIZE(mm)
2	열정	은(92.5%)	토파즈,CZ	22X17X24

### 4. 결론

현재 한국 남성의 옷차림은 예전에 비해 디자인에 대해 많은 관심과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방송에서도 열정, 몸짱에 메트로섹슈얼 신드롬까지 맞물려 멋대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장신구는 여성장신구에 비해 수요가 적어 디자인 개발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디자인의 모티브를 현대 건축가인 마리오 마리오 보타의 건축물에서 찾아 보았다.

따라서 디자인 방법은 마리오 보타 건축물을 가지고 형태의 이미지와 공간감을 살려 빛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남성들을 위한 디자인으로 건축물의 대칭, 반복과 리듬, 기하학, 빛 등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건축물의 형

태를 응용한 커프스버튼, 반지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장신구의 공간감을 위해 빛과 보석으로 부터 공간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얻었고, 장신구의 보석으로 떨어지는 빛은 외부보다 내부로 향한 내향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간의 간격을 주어 보이드 기법을 극대화하였다.

둘째, 대칭과 반복적인 이미지를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해 Jewelry CAD/CAM으로 작업하여 금속 제품의 고급스러운 정결함을 추구하였다.

셋째, 보타의 건축물을 남성들의 감각에 맞게 재구성하여 남성용 장신구의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남성용 장신구 개발을 대상으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 요소들을 분석하여 재구성·응용하며, 새로운 제작 신기술과 재료의 도입으로 경쟁력있는 남성 장신구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남성용 장신구용품의 다양성과 대중화가 더욱 확대되리라 예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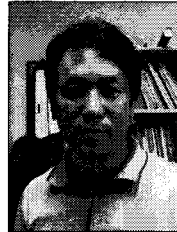
**참고문헌**

- [1] 천승진 “건축작품의 분석들과 요소에 관한 연구 - 현대 건축가의 주택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pp.121-122, 2003.
- [2] 윤재희, 박시영, “마리오 마리오 보타의 단독주택에 나타난 보이드의 유형과 그 건축적 의미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 pp.187-195, 2000.
- [3] 최단하, “현대건축의 구조적 특성을 응용한 장신구 조형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p.8, 2005.
- [4] 김경일, 김광형, “르 코르뷔제의 초기주택에 나타난 ‘내/외부’ 개념에 관한 연구”,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8 No.2, 1998.
- [5] Pro Architect: 마리오 마리오 보타 20. 건축세계 (주)

**저자소개**

**박 승 철(Seung-Chul Park)**

**종신회원**



- 1987년 2월 : 원광대학교 금속공예학과(미술학사)
- 1997년 8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귀금속공예과(미술학석사)
- 1998년 9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주얼리디자인전공 교수

<관심분야> : 귀금속공예, 주얼리디자인, 문화콘텐츠

**유 기 현(Ki-Hyun Ryu)**

**정회원**



- 2003년 2월 : 원광대학교 귀금속공예과(미술학사)
- 2007년 8월 : 공주대학교 영상예술대학원 주얼리전공(미술학석사)
- 2005년 3월 ~ 현재 : 주)디아템 대표

<관심분야> : 귀금속공예, 주얼리디자인, 문화콘텐츠